

남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국 '으뜸'

운봉 전촌동편제마을 등 4개소
농식품부 농촌관광 평가 1등급
전국 329곳 중 31곳 으뜸촌 선정
3년간 마을 홍보 지원 인센티브



남원 운봉 전촌동편제마을의 농촌체험휴양시설의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남원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가 1등급인 '으뜸촌'을 포함해 모두 높은 등급을 받았다.

운봉 전촌동편제마을과 보절 추어마을, 이백 요천다슬기마을, 산내 선돌촌마을 등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촌관광사업 평가에서 모두 1~2등급의 높은 성적을 내며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그 명성을 확고히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해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등급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평가는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맡았다.

남원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는 특히 운봉 전촌동편제마을이 1등급인 으뜸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이는 지난 2021년 인월 달오름마을의 으뜸촌 선정 이후 두 번째다. 나머지 3개 마을도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전국에는 329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이중 31개소가 이번엔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남원 전촌동편제마을, 익산 산돌강옹포마을 등 6개 마을이 포함됐다.

'으뜸촌'으로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마을홍보용 소개자료 제작과 온라인매체 홍보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리산 둘레길 2코스가 지나고 있는 운봉 전촌동편제마을은 판소리 동편제의 대동지로 매년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 축제'가 열리는 등 소리와 예술이 살아있는 마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산양농장에서의 산양 먹이주기, 산양유 아이스크림 만들기, 지리산 흑돼지 소시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그리고 쾌적하고 독특한 맛이 있는 숙박시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찾아가고 싶은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 최선을 다해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전국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저소득층 초·중·고생 학원비 지원

다음달 2일까지 바우처 대상자 모집...최대 15만원

정읍시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키워주기 위한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며 오는 2월2일까지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정규 교과에 포함되지 않는 미술과 음악, 무용, 기술 등의 학원비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2차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450명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바우처사업 가맹점으로 등록된 해당 과목 학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최대 15만원, 학원에서 4만5000원을 지원

원해 학생은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학원비가 15만원을 초과하면 자부담비가 초과된 만큼 늘어난다.

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은 물론 돌봄과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를 제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복지사업을 통해 정읍에서 자라나는 모든 청소년이 소외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펼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주택화재 피해 군민에 지원금

피해 정도따라 최대 800만원...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고창군이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마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위로와 전하고 빠른 일상복구를 지원하는 고창군의 핵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지원금 액수는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는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는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는 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피해를 지원 받은 경우와 할지라도 그 지원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방법은 피해주민이 신청서 및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이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어촌계협의회 간담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논의

고창군이 지난 17일 2024년 해양수산분야 사업 설명회와 어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고창군 어촌계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창군 해양수산과와 고창군 수협, 고창군 어촌계장 등이 참석해 해양수산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올해 주요사업인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등 23개의 사업 설명을 비롯해 질의응답,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2024년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을 축하했으며, 고창군은 연안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어가 소득 증대 등 활력 넘치는 어촌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경과 제로 어촌마을에 청년과 귀어인구유입을 위한 주거기반과 어촌생활권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도비 등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어촌돌봄스테이션과 주거스테이션, 리프스테이션(패류껍질 처리기) 설치, 마을골목안길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전북특별자치도, 정읍도 함께합니다"



지난 17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정읍시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응원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출범 기념행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정읍시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17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운 시장의장 및 시의원,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유남영 정읍농협장을 비롯한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홍보영상과 플래시몹 상영, 내·외빈 풍선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

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의미와 비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식후행사로 강혜연, 안성준, 오강혁, 유지니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해 시민과 함께 즐기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함께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설명절 전 지급

농업인 1만2207명 대상 ha당 41만5950원 적용

남원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원을 이달 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2207명이다.

기존 지급면적은 0.1~6ha이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2020ha에 대해 ha당 41만5950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를 1만2640농가, 1만2532ha, 258억원을 지급했고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840농가, 8737ha, 11억2000만원과 발농직불금 5613농가, 1706ha, 1억10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2024년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의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운 시기,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자금 소요가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